1.1 학회 약사

1970년대 들어서 기초 생명과학 분야의 획기적 연구성과들이 발표되면서 미생물 산업도 크게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초분야와 응용분야를 연결해주는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가 1973년 3월 24일 창립총회를 거쳐 탄생하였고 학회가 출범한지 어언 50년이 지났다. 본 학회가 명실공히 국내 기초 및 응용 바이오 분야를 대표하는 큰 나무로 성장한 배경에는 그만큼 땅속에 굳건히 존재하는 튼튼한 뿌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뿌리는 1972년 11월경, KIST에서 열린 '학회 창립 준비위원회'의 씨앗에서부터 뻗어나기 시작했다. 학회 창립의 준비위원회 구성원은 강효원 교수, 김창식 교수, 배무 교수, 서정훈 교수, 성낙계 교수, 양한철 교수, 유주현 교수, 이응호 교수, 최국지 교수, 최위경 교수, 하덕모 교수, 홍순덕 교수 등이었다. 본 학회의 창립 목적은 국내 미생물산업분야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학술 및 기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었으며 그 준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원칙을 더불어 정하였다. 하나는 산업계와의 깊은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느 특정 기관에 편중되지 않은 평등한 학회 운영권이었다. 이와 같은 학회운영 방식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원들 간의 상호존중과 인화를 중시하는 전통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창립총회에서 회칙을 채택하고 1대 회장(김창식 교수)을 포함한 임원선출을 하였다. 아울러, 학회지인 "산업미생물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Microbiology and Bioengineering)"를 발간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초대 편집위원장(하덕모 교수)와 편집위원이 임명되었다. 산업미생물학회지는 1973년 6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연 2회(1973~1974년), 연 3회(1975년), 연 4회(1976~1985년), 연 6회(1986~2000년) 이후, 연 4회(2001~현재) 발행되었으며, 정기학술대회는 봄과 가을에 개최하였으나 2001년부터 현재까지 정기학술대회는 1년에 1회(6월) 개최하고 있다. 학회 활동이 뛰어난 회원을 포상하고 기리기 위하여 1978년 4월 학회상(공로상, 학술상, 학술진보상, 기술진보상) 시행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1980년 첫 학회상(공로상: 김창식 교수)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50년이 지난 현재 본 학회는 공로대상, 공헌상, 학술대상과 더불어 여성과학자상, 선도과학자상, 중견과학자상, 학술장려상, 기술상, 기술장려상, JMB학술상, JMB논문상, MBL논문상의 12개의 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기념학술상과 기업후원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단법인화를 위하여 1979년 4월 제 13차 정기총회에서 학회 정관을 제정하였다. 이어, 당시 총무간사인 김성기 교수의 헌신적 노력에 의해, 1980년 10월 정관에 대한 허가를 과학기술처로부터 받아 '사단법인 한국산업미생물학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로써 본 학회는 본격적으로 재정 및 행정 운영에 있어 전문학회로 거듭나게 되었다.

학회 운영에 대한 의결은 이사회가 담당하고 이사회와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간사회에서 활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장 제도를 마련하였다. 1989년 변유량 교수가 초대 간사장을 역임하였으며 이로써

간사장 중심의 간사진에 의해 학회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 신중하고 원숙한 이사회와 진취적인 간사회가 조화있게 균형을 이루면서 학회는 더욱 크게 발전하여왔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있는 회원들의 상호 학술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989년 4월 호남지부 학회(지부장: 정지흔 교수)와 영남지부 학회(지부장: 홍순덕 교수)가 창립되었다. 호남지부는 창립 후 한국식품과학회와 합동으로 지부학술대회를 개최해오던 것을 2013년부터 단독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1989년 10월 전문분과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1990년 생물공학분과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023년 현재, 학술분과는 생물공학분과를 포함한 1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과를 중심으로 활발히 학술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산업미생물학회지와 별도로 학회 영문학술지인 Journal of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JMB)를 1991년 창간하였다. JMB는 창간 시 연 4회로 발간하다가 1995년 연 6호로 증호했으며 2006년 부터 연 12회가 발간되었다. JMB는 1994년부터 ISI사의 전문분야별 간행물인 Biotechnology Citation Index, SciSearch, Research Alert에 등재되었고, Chemical Abstract, Biological Abstract 등 국제 유수 정보지에 등재되었으며, 1998년에 SCI에 등재되어 JMB 국제화의 큰 발판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 학회의 위상 역시 크게 높여주었다. JMB의 SCI 등재는 편집간사진과 많은 회원들의 아낌없는 노력의 결과였다.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JMB의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했던 편집위원장 김병홍 박사, 이용현 교수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다. 이후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학회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JMB가 2007년에는 Medline에 등재되어 국제적인 학술지로서 손색없는 면모를 갖추게 되었고 2008년에는 SCI에서 SCIE로 등재 변경되었으며 SCOPUS에 등재되었다. 이어, 2022년 12월에 PubMed Central® (PMC)에 등재 확정되어 국제 저명전문학술지의 위상을 본격적으로 갖추게 되었다. 한편, 그동안 학회 관련 내용을 알려왔던 '학회소식'을 1991년 제 4권부터 '생물산업'으로 확장 발간하였다. '생물산업'은 2003년부터 'e-생물산업'으로 명칭 변경을 하였고 인터넷 웹진으로 발행매체를 변경하여 발간해오고 있다.

1991년에 학회 사무실(서초구 양재동 삼호오피스텔 A1014호)을 구입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이후 1993년에 학회사무실을 지금은 재건축으로 없어진 구 과학기술회관 507호로 이전하였다. 학회사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협소한 회의 장소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회사무실을 2017년에 과총회관 신관 402호로 확장 이전하였다. 신관 402호에는 회의실 전용 공간이 갖춰져 있다.

본 학회는 The 9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Genetics of Industrial Microorganisms: GIM-2002(조직·실행위원회 위원장 이계준 교수, 사무총장 이상기 박사)를 주관 학회로 유치하여 2002년 7월 1일부터 5일까지 경주에서 2,000여 명의 국내외 학자가 참여하는 큰 규모의 학술행사를 주도적으

로 치렀다. 이를 바탕으로 본 학회의 학술행사가 그 규모나 내용 면에서 국제적 수준으로 크게 상승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본 학회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한·일 바이오메스 심포지엄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하였고 2012년에는 International Biotechnology Symposium(IBS)를 한국생물공학회와 공동 개최하여 큰 학문적 성과를 얻었다.

변화하는 첨단 생명공학 분야의 새로운 물결을 포괄하고 미래를 향해 발전해 나아가는 학회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2001년 11월 학회 명칭을 (사)한국산업미생물학회에서 (사)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The Korean Society for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로 변경하였다.

학회 창립 이후 발간해오던 '산업미생물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Microbiology and Bioengineering)는 1990년 영문명을 Korean Journal Applied of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로 변경하여 사용했으며, 연 6회(1986~2000년) 발행하였다. 산업미생물학회지는 그 이후 2001년 9월부터 학술진흥재단 전문학술지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KCI(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등재되어 있으며, 2001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연 4회를 발간해 오다가 학회명의 변경에 따라 2002년 30권 1호부터 그 명칭을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KJMB)'로 변경하였다. 이후 2008년에 Elsevier 사에서 운영하는 세계적인 논문 DB 서비스인 Scopus에 등재되었으며, 이외에도 EMBASE/Excerpta Medica, Elsevier BIOBASE/Current Awareness in Biological Sciences 등에 등재되어 있다. 야심적인 국제화 추진을 위해 2015년 1호부터 KJMB 국문 저널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영문명만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Letters(MBL)로 변경하였다. MBL의 활성화 방안으로 2019년 MBL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초대 편집위원장(이동건 교수)을 선출하고 JMB와 분리된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독자적 편집 운영을 하게 되었다.

본 학회는 2001년에 결성된 한국미생물학회연합의 구성 학회 중 학회 규모가 가장 큰 학회로서 학회연합체의 운영에 실질적 협력을 지속하여 왔으며 매년 가을에 개최되는 '한국미생물학회연합 학술대회' 국제심포지엄에 이 학회연합체가 지속하였던 2019년까지 참여하였다. 또한, 본 학회는 국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미국산업미생물학회(Society for Industrial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와 상호방문 및 연사 교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 협력관계를 2023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또한, 2016년에 결성된 한국생명공학연합회의 운영 및 연합심포지엄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다.

시대의 조류에 따라 우리 사회에 연구윤리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할 무렵인 2008년, 우리 학회는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2009년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연구윤리를 심의하는 활동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창립 당시 100여 명의 회원으로 출발한 본 학회는 50년이 지난 현재 약 8,000명의 개인 회원과 90여 개의 단체 회원을 보유한 큰 학회로 성장했다. 예산의 규모 역시 창립 해인 1973년의 결산 150여만 원 수준에서 2022년 현재 12억 원에 근접한 규모로 커졌다. 지난 50년 동안 생명과학 및 생명공학 분야는 지식의 깊이와 더불어 연구 방법의 기술 면에서도 눈부신 발전이 있었다. 특히, 방대하게 축적되는 생체 정보를 디지털 세계에 저장하고 활용하는 기술이 매우 빠르게 축적되고 있으며 그 적용의 외연이 해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본 학회는 이와 같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넓어지는 학술 및 기술 분야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회원들 상호 간에 이를 공유하도록 유도해 왔다.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본 학회는 앞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신기술을 포괄하는 새로운 융합 분야를 회원들이 주도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학술 및 기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줄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미생물학과 생명공학분야를 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거점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아울러 기원한다.

(사)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39대 회장

이정국 명예회원

집요 편찬 및 감수

20년사: 수라 서정훈 근지
30년사: 오천 이계준 근지; 김성기 감수
40년사: 오천 이계준 근지; 이용현 이계준 감수
50년사: 이정국 근지; 이철훈 성문희 감수